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와 대인관계 특성

김동직 · 한성열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 분포 형태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미국의 성인들과 대학생들의 전형적인 분포 형태는 안심>회피>양가형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된 분포 형태에도 불구하고 애착 유형간의 심리적 특성의 차이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의 성인들과 대학생들에게서 양가형에 비해 회피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미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집단주의적이며 관계지향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회피형보다 양가형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 1과 2의 결과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는 회피형보다 양가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별 특성은 미국 대학생들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크게 '대상 관계 이론', '사회학습 이론' 및 '애착 이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애착 이론은 Bowlby (1969)의 개념화 이후 Ainsworth, Blehar, Waters 및 Wall(1978)의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 실험을 거쳐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 애착 질문지에 이르러 기까지 가장 널리 연구되어 왔다. 최근에는 성인 애착 유형이 대인관계 과정, 우울 및 불안 등의 심리적 장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다(cf. Roberts, Gotlib, & Kassel, 1996, p. 311). 대부분의 성인 애착 연구들은 애착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유아들의 행동 특성이 성인기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과 유아와 성인의 애착 유형 분포 비율이 유사하다는 발견에 근거하고 있다.

애착의 형성과 유지

애착 이론에서는 유아의 애착 유형은 주 보호자(어머니 혹은 어머니 대리인)가 유아의 요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애착을 형성할 무렵 유아는 애착 인물이 자신의 요구에 지지와 보호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애착 인물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되며, 자기가 애착 인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자기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하여 안심(secure)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자기와 애착 인물 모두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갖게 되며, 불안정(insecure) 애착을 형성한 유아들은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어느 한쪽에 대해서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을

갖게 된다(Bowlby, 1973). 그러나 관계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체감 발달이나 자기-반영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살을 전후한 유아의 인지 발달 능력에 비추어 그러한 관계 표상의 형성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Lewis, 199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착 이론에서는 생후 12개월을 전후한 시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아동기는 물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애착의 안정성은 흔히 내적 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 혹은 정신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을 통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작동 모델이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Bowlby(1973)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일단 발달하게 되면, 작동 모델은 현재의 발달 방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자기-조절 수단을 스스로 갖추게 된다. 예를 들어, 인지적, 행동적 구조는 무엇을 지각하고 무엇을 무시할 것인지, 어떻게 그 상황을 해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을 건설적으로 다룰 가능성이 있는 행동 계획이 무엇인지 등을 결정한다. 게다가, 내적 작동 모델은 어떤 종류의 사람과 상황을 추구해야 하고 어떤 종류를 멀리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개인은 자기 자신의 환경 선택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바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Bowlby, 1973, pp. 368-369).

Bowlby의 이론적 가정에도 불구하고 애착의 안정성을 입증한 장기 종단 연구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현존하는 몇몇 장기 종단 연구는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기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Fox, 1995; Halverson, 1988). 애착의 안정성과 관련해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기되는 의문은 유아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는 동안 많은 인지적 작동 모델들이 급격한 변화를 겪는데 유독 애착 작동 모델만이 변화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냐는 것이다(Buelow, McClain, & McIntosh, 1996). 애착의 안정성에 대한 좀더 비판적인 견해는 1년 동안 세 번 반복 측정했을 때 성인 애착 유형의 변화율이 22%에 달했다는 연구로도 뒷받침되는데, 그러한 변화율은 사람들이 1년 동안 과거의 내적 모델과 일치하지 않는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cf.

Berscheid, 1994, p. 102). 최초로 성인 애착 질문지를 개발한 Hazan과 Shaver(1987)도 애착 유형이 Bowlby의 가정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들은 유아기에 채택된 애착 유형이 전생애를 통해 변하지도 않고 수정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부적응적 행동의 생의 초기 기원설이 이론상으로는 아무리 그럴 듯해 보여도 여전히 가정을 일 뿐이며 유아 연구 분야의 '이행되지 않은 약속(unfulfilled promise)'으로 남아 있다는 Lewis(1990, p. 280)의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성인 애착 이론은 성인의 애착 유형이 초기 아동기에 형성된 이후 성인기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다. 또한 애착 유형이 부모 이외의 친밀한 타인이나 일반적인 타인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애착 유형이 일종의 특성(trait)이나 성향(disposition)처럼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인들은 관계에서의 목적이나 상호작용 상대에 따라 다양한 애착 유형을 사용하며,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인에 대해서조차 때에 따라 다른 애착 지향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는데, 사람들이 10개의 중요한 대인관계에서 어떤 유형의 애착 지향을 보이는지 알아본 결과, 88%의 사람들이 두 가지 이상의 애착 유형을 보고했으며 47%는 세 가지 애착 유형을 모두 보고했다(Baldwin, Keelan, Fehr, Enns, & Koh-Rangarajoo, 1996). 이러한 발견에 근거해 Baldwin 등은 성인의 애착 유형이란 안정된 성향 변인이라기보다 관계의 목적이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관계 변인이라고 주장한다.

애착 유형의 분류

Ainsworth(1989)에 따르면, 애착 행동 체계에 관한 연구는 유전적 소질, 문화적 영향 및 개인적 경험에 돌릴 수 있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에 보편적인 기능 과정에 대한 탐색을 의미한다(p. 709). 애

착 행동을 ‘낯선 상황(strange situation)’이라고 하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장면에서 매우 짧은 순간 유아가 표출하는 반응에 국한시킬 경우 문화적 보편성을 가질 것인지는 매우 높다. 한 살을 전후한 시기의 유아들의 행동에 반영된 문화적 차이의 정도는 매우 미세할 것이며, 낯선 상황이라는 실험 장면에서 유아들이 표출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 양육 방식이 문화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아들은 꽤 이른 시기부터 문화적 차이에 노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Field(1996, p. 542)가 인용하고 있는 자이레의 Efe 피그미 사회의 아동 양육 방식에 관한 인류학적 보고는 이에 대한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fe 피그미 사회에서 유아는 출생 직후부터 여러 명의 마을 부인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또한 유아는 생모의 젖뿐만 아니라 수유 가능한 마을 부인들의 젖을 마음대로 먹으면서 자란다. 이러한 관습은 유아로 하여금 복합 애착의 형성을 가능하게 해주며 동시에 유아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복합 애착의 관행이 있는 문화권에서의 아동 양육 방식은 유아와 어머니의 단독 애착이 보편적인 백인 중산층 문화에서의 양육 방식과 다르며, 부모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 역시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복합 애착의 전통(e.g., sibling mothering)이 있는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문화권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전통적 행동 양식은 일탈된 것으로 혹은 태만한 것으로 도덕적,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많은 인류학적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가정되는 어머니에 대한 일방적인 강조는 비교문화적으로는 물론 역사적으로도 적용될 수 없다(Ambert, 1994).

양육 방식이나 아동-어머니 관계에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배제하더라도 애착 유형의 분류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유아 애착 연구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인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 안심 애착으로 분류되었던 유아들이 놀이시설이나

유아원에 맡겨질 때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심하게 저항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다(Field, 1996). 또한 양가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의 자기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이라는 점은 비교적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지만, 회피형으로 분류된 아동들의 자기 개념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못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Cassidy, 1988). 아동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세 가지 애착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없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방치된 아이들에게서는 회피형과 양가형의 특성이 혼재된 상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ain & Solomon, 1990).

성인 애착 연구로 넘어가면 애착 유형의 분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유아들과 달리 행동 반경이 매우 넓은 뿐만 아니라 부모를 지각하거나 부모와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가 유아들과 현저하게 다른 성인들의 경우는 애착 유형의 분류 자체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애착 유형별로 행동상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이 초기 유아기에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우며, 때로는 애착 유형에 따라 심리적 특성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최초로 성인 애착 연구를 위한 질문지를 개발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나타났다. 그들의 연구에서 성인 집단의 경우 행복감이나 우정, 타인에 대한 신뢰 등에서 안심형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회피형과 양가형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그런가 하면 대학생 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애착 사에 있어서 안심형과 회피형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었으며, 회피형인 대학생들이 유의미하게 높은 고독감(loneliness)을 보고하지도 않았다. 결혼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에서 Carnelley, Pietromonaco 및 Jaffe(1994)는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과 불안정(insecure) 애착 유형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알코올이나 약물 문제가 있는 어머니를 둔 성인 여성들이 양가형이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적다는 것도 발견했다. Feeney와 Noller(1990)는 회피형인 사람들이 안심형인 사람들에 비해 좀더 부정적인 자기 이

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지만, Collins와 Read(1990)는 두 집단간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애착 유형의 분류 문제는 다시 말해 유형에 따라 애착 이론에서 가정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행동 특성이 정말로 나타나는지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문제는 애착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애착 이론의 과제로 남아 있다.

자기-타인 이원 모델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성인 애착 유형 분류와 관련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Bowlby의 이론에 근거한 자기-타인 이원 모델을 구성하였다. 즉 Bowlby의 이론에 따르면, 애착을 형성할 무렵 유아는 애착 인물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 자신과 애착 인물 모두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표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자기-타인 축과 긍정-부정 축을 서로 교차시키면 4개의 조합(자기 긍정-타인 긍정, 자기 긍정-타인 부정, 자기 부정-타인 긍정, 자기 부정-타인 부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의 연구들에서 애착 유형별 특성이 일관되지 않았던 것은 이론상으로 분류 가능한 또 하나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애착 유형별 특성이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안심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의 특성은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 즉 안심형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만족감이나 자기 존중감이 높으며, 타인에 대한 신뢰감도 높고 관계에서의 만족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Bartholomew와 Horowitz는 이러한 점에 근거해 안심형인 사람들은 자기와 타인을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대로, 회피형으로 분류된 성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고 애착의 요구도 중시하지 않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타인과 가까워졌을 때 주관적 고통과 불편감을 호소한다. 그들은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단일 유형으로 취급하였던 회피형을 거부-회피형(dismissing-avoidant)과 공포-회피형(fearful-avoidant)의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거부-회피형인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그러나 공포-회피형인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에 압도되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려 하지도 않으며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 양가형인 사람들은 중요한 타인과의 부정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여전히 안전감의 토대로 생각하며 그에게 의지하려 한다. 따라서 양가형인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는 무가치하게 느끼지만, 주관적 안녕감을 얻기 위해 중요한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타인을 이상화시키는 특징이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의 4유형 질문지는 기본적으로 Hazan과 Shaver(1987)가 작성한 3유형 질문지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들이 제안한 네 가지 성인 애착 유형에 대한 기술문과 각 유형별 자기-타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안심형(자기 긍정-타인 긍정)

나는 비교적 쉽게 다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편이다. 내가 남들에게 의지하든 남들이 나에게 의지하든 간에 나는 편안하게 느낀다. 나는 혼자서 지내거나 남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지는 않는다.

거부-회피형(자기 긍정-타인 부정)

나는 가까운 정서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지내는 게 편안하다. 독립심과 자기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나는 남들에게 의지하거나 남들이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공포-회피형(자기 부정-타인 부정)

나는 남들과 가까워지면 왠지 편안하지가 않다. 나는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원하기는 하지만, 남들을 완전히 신뢰하거나 남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렵다. 나는 남들과 가까워지면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된다.

양가형(자기 부정-타인 긍정)¹⁾

나는 남들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하지만, 남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워지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 나는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안심이 된다. 나는 때때로 내가 남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남들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 염려스럽다.

애착 유형의 분포 형태

Campos, Barret, Lamb, Goldsmith 및 Stenberg (1983)가 전국적인 표본 조사를 통해 미국 유아들의 애착 유형 분포 비율이 안심형 62%, 회피형 23%, 양가형 15%라고 보고한 이후, Hazan과 Shaver(1987)는 미국의 성인 집단(평균 36세)과 대학생 집단(평균 18세)의 애착 유형 분포율도 유아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했다(성인 집단 - 안심형 56%, 회피형 25%, 양가형 19%; 대학생 집단 - 안심형 56%, 회피형 23%, 양가형 20%). Collins와 Read(1990)가 Hazan과 Shaver(1987)의 범주형 척도를 연속형 척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외적인 분포 형태(안심형 47%, 회피형 15%, 양가형 38%)를 얻기는 했지만, 그들의 연구에서도 Hazan과 Shaver의 범주형 척도에 의한 분포율은 안심형 63%, 회피형 23%, 양가형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연속형 척도는 기본적으로 애착 유형을 특정 범주로 분류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Hazan과 Shaver(1987)의 범주형 척도를 사용한 연구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Mikulincer(1995)는 이스라엘 고등학생들(16-17세)을 대상으로 애착 유형과 자기 표상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는데, 여섯

1) Bartholomew와 Horowitz의 4유형 질문지에서 안심형의 내용은 단어의 배열 순서와 같은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면 Hazan과 Shaver(1987)가 제시한 안심형과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거부형과 공포형은 Hazan과 Shaver가 제시한 회피형의 내용을 둘로 나눈 후, 각각에 약간의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또한 Bartholomew와 Horowitz는 그들의 질문지에서 양가형을 몰입형(preoccupied)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사실상 몰입형과 양가형의 내용은 두 질문지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 원저자들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분류 명칭과의 혼동을 줄이고 선행 연구들과의 비교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양가형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번의 연구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형적인 분포 형태를 얻었다(6개의 결과를 평균한 분포율 - 안심형 60.3%, 회피형 25.9%, 양가형 13.8%).

4유형 척도를 사용한 Bartholomew와 Horowitz (1991)의 연구에서도 회피형의 비율이 양가형보다 더 높게 나왔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회피형을 둘로 나뉘는데도 각각의 회피형이 양가형보다 많이 나타났다(연구 1; 안심형 46.7%, 거부형 18.2%, 공포형 20.8%, 양가형 14.3%). 또한 결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4유형 척도를 사용한 Carnelley 등(1994)의 연구에서 거부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안심형 43%, 공포형 41%, 양가형 16%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질문지에 포함된 애착 유형의 수에 관계 없이 애착 분포 형태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 애착 유형 분포의 문화적 배경

성인의 애착 유형은 개인이 경험하는 관계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하는 상대가 달라짐에 따라 한 사람이 동시에 다양한 애착 유형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성인 애착 연구에서 안심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안정된 정서, 타인에 대한 높은 신뢰, 높은 자기 존중감)은 비교적 안정되게 나타나지만, 회피형과 양가형의 특성은 아직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들에서 성인의 일반적인 애착 유형 분포율이 상당히 일관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회피형과 양가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특성이 서로 미분화된 상태인데도 미국의 성인들과 대학생들에게서 양가형에 비해 회피형의 비율이 항상 높게 나오는 현상은 미국에서 회피형이 양가형보다 문화적으로 더 선호되는 유형이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어느 사회에나 그 사회의 성원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행동 규범들이 있기 마련인데, 각 개인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들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부모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의 일차 전달자로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부모는 단순히 가치를 전달하기만 하는 통과기로서의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기들의 기준에 맞는 가치들을 선별하거나 통제하는 여과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종교적 태도나 정치적 신념 등의 영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아동의 애착 유형이 달라지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모든 분야에 걸쳐 언제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Kagitcibasi(1990)에 따르면, 사회화는 부모의 '인위적인 조형(deliberate shaping)'뿐만 아니라 비의도적인 '문화화(enculturation)' 과정도 포함하는 것이다(p. 137). 아동이 서서히 부모의 품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 이러한 문화화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진다.

널리 알려진 대로 미국은 전형적인 개인주의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타인과 구별되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자기(self)를 강조하고 자기의 독립과 자율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다. 따라서 미국의 대학생들과 성인들은 높은 의존 욕구와 관계 지향성이 주된 특징인 양가형보다는 낮은 의존 욕구와 높은 독립 욕구 및 자율성의 침해에 대한 두려움이 주된 특징인 회피형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선호 경향성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경험한 문화화의 영향력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성인의 애착 행동은 문화에 따른 편차가 매우 클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애착 이론이란 결국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착 이론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보편성을 가정하고 있다(Ainsworth, 1989). 그러나 Efe 피그미 사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모-자식 관계는 단순히 생물학적 관계라기보다 사회-문화적 관계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Ambert(1994)는 아동에 대한 개념이나 부모 행동의 필요조건과 경계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현상으로서 역사적 시기, 문화, 계층 및 인종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한

다.

한국은 집단주의적이며 관계지향적인 문화권에 속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에서도 이미 드러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 최상진, 김혜숙 및 유승엽(1994)은 한국에서의 부모-자식 관계는 서구에서와 달리 '부모-자식 일체감(eness)'이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한국의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기쁨이나 고통을 자신의 기쁨이나 고통으로 경험하는 성향이 높으며,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과 자애를 베풀고 자식은 그러한 부모에게 고맙고, 측은하고, 미안하게 여기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부모-자식 일체감이라는 현상은 성인 애착 유형 중 남들과 정서적으로 완전히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양가형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한국인의 높은 상호의존 욕구는 반드시 부모-자식 사이의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친밀한 사람들 사이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는 '인정의 공간'이 존재하며(이수원, 1995), 한국인의 '우리 의식'은 단순히 공통된 특성의 존재 유무에 의해 묶여지는 '개별성' 우리가 아니라 '하나됨'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Choi & Choi, 1990) 등에도 한국인의 높은 상호의존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들은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는 회피형보다 양가형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 1

연구 1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 분포 형태는 미국 대학생들과 달리 회피형보다 양가형이 많이 나타나는 형태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부가적으로 애착 유형의 특성에 있어서 한·미 대학생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도구로 앞에서 인용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4유형 성인 애착 질문지를 채택하였다. 그들의 질문지는

Bowlby의 이론적 가정에 좀더 충실하며, 애착 유형 분류와 관련된 문제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단순한 유형 분류의 차원을 넘어 그들이 제안한 이론적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별 특성 차이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기-타인 이원 모델에 따르면, 안심형(자기 긍정-타인 긍정)과 거부형(자기 긍정-타인 부정)을 한 집단으로 묶고 양가형(자기 부정-타인 긍정)과 공포형(자기 부정-타인 부정)을 또 다른 한 집단으로 묶었을 때, 두 집단의 자기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있지만 타인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한다(자기 모델). 반면에 안심형과 양가형을 한 집단으로 묶고 거부형과 공포형을 또 다른 한 집단으로 묶었을 때, 두 집단의 타인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있지만 자기에 대한 평가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한다(타인 모델).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 존중감 척도와 자기 수용감 척도로 자기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고, 사교성 척도로 타인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여 자기-타인 이원 모델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타인에 대한 평가를 사교성 척도가 아닌 신뢰성(trust)과 냉소주의(cynicism) 척도로 측정하였다.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교성도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사교성은 일종의 대인관계 기술로서 개인의 사회적 지지망이나 신체적 매력과 같은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Berscheid, 1994). 이에 비해 신뢰성과 냉소주의는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좀더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특히 신뢰성에 대한 정의는 성인 안심 애착 유형에 대한 정의와 유사한데, 신뢰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상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Berscheid, 1994).

방 법

조사 대상자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192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애착 질문에 중복 응답하거나 다른 척도에 부분적으로 응답한 자료들을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67명(남 77명, 여 71명, 성별 미확인 19명; 평균 연령 22.7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피험자 손실은 주로 개인의 애착 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인 애착 질문지는 강제 선택형 범주 척도였는데, 약 20여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애착 유형으로 둘 이상의 범주를 동일한 강도로 평가하였기 때문에(예; 안심형과 거부형을 모두 5점으로 평가하거나, 세 개의 애착 유형을 동일한 점수로 평가하는 경우) 최종 분석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측정 도구

애착 질문지 - 앞에서 인용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4가지 애착 유형이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양식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한 후,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한 유형을 개인의 애착 유형으로 결정하였다.

자기 존중감 - 10문항으로 된 Rosenberg(1965)의 질문지를 사용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 1에서 내적일치도는(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점수 분포 범위는 20점-50점이었다.

자기 개념 명료성 - 이것은 개인의 자기 개념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명료하고 분명하게 규정되며, 내적으로 일관성 있고 시간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ampbell 등(1996)이 작성한 것으로서 총 12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Campbell 등(1996)이 보고한 내적 일치도는 평균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이었다. 점수 분포 범위는 22점-57점이었다.

타인에 대한 평가 - Wrightsman(1974)의 'Philosophies of Human Nature 단축형'을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6개의 하위 요인을 84문항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뢰성(trust)과 냉소주의(cynicism)를 측정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에는 20문항(신뢰성과 냉소주의 각각에 대해 10문항씩)으로 구성된 단축형이 추천되고 있다. 신뢰성과 냉소주의의 상관은 -.27에서

표 1. 애착 유형의 분포와 각 척도의 평균치(표준편차) 및 변량분석 결과

모델	안심형	거부형	양가형	공포형	전체	F(3, 163)	p
자기	긍정	긍정	부정	부정			
타인	긍정	부정	긍정	부정			
사례수(%)	67(40.1%)	18(10.8%)	57(34.1%)	25(15.0%)	167		
자기존중감	38.67(5.98) _b	38.83(6.84) _b	32.67(5.52) _a	33.12(7.44) _a	35.81(6.79)	12.79	.0000
자기명료성	42.45(7.29) _b	39.50(6.48) _{ab}	35.00(7.03) _a	36.20(6.90) _a	38.65(7.77)	12.63	.0000
신뢰성	28.66(4.45) _b	29.06(4.61) _{ab}	27.09(4.12) _{ab}	26.60(3.62) _a	27.71(4.36)	4.19	.0069
냉소주의	31.00(5.54)	29.78(5.06)	32.77(4.64)	33.48(5.23)	31.84(5.24)	3.02	.0313

주) 아래 첨자(a, b, c)는 Scheffe 사후비교 결과

-.33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 두 척도의 상관은 -.38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두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신뢰성 .62, 냉소주의 .71로 나타났다.

각 척도의 점수 범위와 표준 문항은 다음과 같다.

신뢰성(18점-42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 득이 된다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대개는 진실을 말한다.”

냉소주의(12점-45점); “들키지 않고 공짜로 영화 구경을 할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였다. 하나의 집단(회피형)으로 묶일 수도 있는 거부형과 공포형은 자기 존중감 척도에서만 차이가 있었다.

거부형과 공포형의 적은 사례수를 고려하여 둘을 하나의 집단(회피형)으로 묶어 전통적인 3유형 형태로 분석한 결과 자기 존중감과 자기 명료성 척도에서만 유의미한 집단 차이가 나타났다[F(2, 164)=14.00, 17.66; all $p < .001$]. 사후비교 결과, 실질적인 집단 차이는 안심형과 나머지 두 집단의 차이였다(b, a, a). 따라서 4유형으로 분류했을 때에 비해 집단간 차이가 더욱 모호해졌다.

결 과

애착 유형의 분포와 유형별 심리적 특성의 차이

애착 질문지를 통해 전체 응답자를 4가지 애착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대학생의 애착 유형 분포율은 예상대로 양가형이 거부형이나 공포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가형의 비율(34.1%)은 거부형과 공포형을 합한 집단으로 묶은 비율(25.8%)보다도 높았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결과에서는 거부형과 공포형 각각이 양가형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한·미 대학생 간의 자세한 비교는 연구 2의 표 2 참조).

자기 존중감, 자기 명료성, 신뢰성 및 냉소주의에 있어서 애착 유형간 차이에 대한 일원 변량분석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기는 했지만, Scheffe 사후비교 결과 실질적인 집단 차이는 (안심+거부) 집단과 (양가+공포) 집단의 차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즉 안심형과 거부형은 모든 척도에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없었으며, 양가형과 공포형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타인 이원 모델의 검증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방식대로 자기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안심형과 거부형을 한 집단(n=85)으로 묶고, 양가형과 공포형을 또 다른 집단(n=82)으로 묶어 자기 평가(자기 존중감, 자기 명료성)와 타인 평가(신뢰성, 냉소주의)에 대한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자기 모델은 자기 존중감($t=6.22$, $p < .001$)을 비롯해서 자기 명료성($t=5.89$, $p < .001$), 신뢰성($t=3.21$, $p < .01$), 냉소주의($t=-2.83$, $p < .01$) 등의 모든 척도에 대해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안심형과 양가형을 한 집단(n=124)으로 묶고, 거부형과 공포형을 또 다른 집단(n=43)으로 묶어 타인 모델을 검증한 결과, 자기 모델과 반대로 모든 척도에 대해 아무런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자기-타인 이원 모델은 입증되지 못했다. 즉 자기 모델에서는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도 차이가 나타났고, 타인 모델에서는 타인

에 대한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나야 하는데도 그러한 차이가 없었다. 표 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론적 모델의 가정과 달리 거부형은 안심형 못지 않게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높은 신뢰성과 낮은 냉소주의)하였다. 반면에 양가형은 공포형보다 타인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논 의

애착 유형별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Bowlby로부터 비롯한 자기-타인 표상에서의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애착을 형성할 무렵 유아와 애착 인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성인 애착 연구에도 이 가정들은 그대로 채택된다. 그러나 앞에도 살펴본 대로 성인 애착 연구에서 이 가정은 아직도 완전히 확립되지 못했다. 즉 안심형인 사람들이 자기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연구에서 입증되었지만, 연구에 따라 회피형과 안심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거나 회피형과 양가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타인 이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 1의 결과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모델에서 가정하는 대로 안심형과 거부형은 양가형과 공포형에 비해 자기 자신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했으나, 타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거부형이 안심형이나 양가형보다 더 부정적이지 않았으며, 양가형이 거부형이나 공포형보다 더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자기-타인 이원 모델은 입증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된 측정 도구의 차이(즉 본 연구에서 타인에 대한 평가를 사교성이 아닌 신뢰성과 냉소주의 척도로 측정한 것)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안심형과 공포형 간의 차이는 자기-타인 이원 모델의 가정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전체 집단에 대한 자기-타인 이원 모델이 입증되지 못한 것은 거부형과 양가형으로 분류된 한국 대학생들의 특성이 미국 대학생들

의 특성과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거부형과 공포형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전통적인 3유형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러한 차이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 3유형 분류 방식을 채택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 성인 집단의 경우 안심형인 사람들은 회피형이나 양가형인 사람들에 비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는 안심형과 회피형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지만 양가형인 사람들이 다른 집단보다 자기와 타인을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3유형 분류 방식을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달랐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집단간의 차이가 자기 평가 부분에서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대학생들은 타인 평가에 있어서 애착 유형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겸손과 체면을 미덕으로 여기는 한국인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타인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타인을 긍정-부정의 축에서 평가하는 상황에서 정확성보다는 다소 호의적인 일반적 반응 경향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1에서 애착 집단에 따라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일반적 반응 경향성 때문이 아닌가라고 추측된다.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맺으며, 그러한 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의미를 형성해 간다. 그런데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은 일차적으로는 서로의 목적에 달려 있지만, 좀더 직접적으로는 서로의 역할에 의해 규정되며 보다 큰 맥락에서는 문화에 의해 규정된다(Fiske, 1992). 부모-자식 관계, 상하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등등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관계는 어느 문화권이나 존재하지만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은 문화적으로 규정된다. Baldwin 등(1996)의 지적대로 애착 지향은 개인의 특성 변인이라기보다 관계 변인이며, 그런 점에서 애착 관계 또한 문화적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

다. 즉 안심형을 제외한 회피형이나 양가형의 특성이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개인의 애착 유형이 수시로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성인들의 애착 유형 분포가 상당히 일관된 것은 그러한 형태가 개인주의 문화권인 미국에서 선호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애착 유형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이 아직은 미국만큼 많이 축적된 상태는 아니지만 연구 1의 결과는 애착 유형의 분포 형태와 애착 유형별 특성이 문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 2

연구 1을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 분포 형태와 유형별 특성이 미국 대학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유형별 특성의 차이가 매우 제한된 측면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 2에서는 좀더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형별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방법

조사 대상자

연구 1에서와 같은 많은 자료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답 결과를 통지해 주는 조건으로 심리학 개론 수강생 중 조사를 원하는 학생들만 참가시켰다. 또한 애착 유형의 분류와 관련해 연구 1에서처럼 각 애착 유형을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하나만 선택할 것을 강조했다. 234명의 자료 중 부분적으로 응답한 자료 5부를 제외하고 229명(남 89명, 여 140명; 평균 연령 22.6세)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 도구

애착 질문지 -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성인 애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 존중감 - Rosenberg(1965)의 자기 존중감 척도를 사용했는데 연구 2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6이었

으며 점수 범위는 19점-49점이었다.

자기애 - 54문항의 원 척도를 Raskin과 Terry(1988)가 여러 번의 요인분석과 타당화 절차를 통해 재구성한 40문항의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92로 나타났다. 점수 범위는 60점에서 177점까지였다.

대인문제 - Leary의 전통을 따라 Horowitz 등이 개발한 127문항을 Alden, Wiggins 및 Pincus(1990)가 다양한 통계적 절차를 통해 8개의 하위 영역별로 8문항씩 총 64문항으로 재구성한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나는 지나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나는 ~하기가 어렵다' 라는 형태로 진술되어 있는데, 5점 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그 영역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며, 지나치게 낮은 점수는 그 영역의 특성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각 하위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동 특성과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 및 점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지배성(domineering) - 타인을 통제, 조종, 변화시키려 하며 타인에게 공격적이다($\alpha=.72$, 점수범위=8-29).

보복성(vindictive) - 타인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남의 요구나 복지를 배려하는 능력이 부족하다($\alpha=.73$, 점수범위=8-31).

냉담성(cold) - 타인에게 애정을 표현하거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타인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거나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 또한 타인을 관대하게 대하거나 용서하지 못한다($\alpha=.79$, 점수범위=8-35).

사회적 회피성 socially avoidant) - 사람들 앞에서 당혹스러워 하며 불안해 한다. 사회적 관계를 주도하지 못하고, 정서 표현도 서툴러 남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alpha=.85$, 점수범위=8-34).

비주장성(nonassertive) - 타인에게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못하며, 권위적인 역할에 불편해 하고,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거나 주장하지 못한다($\alpha=$

.81, 점수범위=8-36)

피착취성(exploitable) - 타인을 공격하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한다. 타인에게 잘 속고 이용당한다고 생각한다($\alpha=.78$, 점수범위=8-37).

현신성(overly-nurturant) - 지나치게 타인을 기쁘게 해주려 하며, 타인을 너무 배려하고 관대하며, 남을 너무 잘 믿고 쉽게 용서한다($\alpha=.74$, 점수범위=9-37)

간섭성(intrusive) - 남에게 지나치게 자기의 사생활을 노출하고 관심을 받으려 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기를 어려워한다($\alpha=.70$, 점수범위=8-35).

위의 8개 하위 영역은 지배성-비주장성 축과 냉담성-현신성 축을 종축과 횡축으로 교차시켰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배성으로부터 보복성, 냉담성, 사회적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현신성, 간섭성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인접 영역들은 서로간에 상관성이 높으며, 상호 대칭 지점에 있는 영역들은 반대 특성을 보인다. 즉 비주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회적 회피성과 피착취성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며, 지배성은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원주상에 나타나는 반응 형태를 통해 개인의 주된 문제 영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반응의 일관성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냉담성이 높게 나온 사람이 그 반대 특성인 현신성도 높게 나온다면, 이것은 매우 특이한 반응이거나 무선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결 과

애착 유형의 분포 형태

연구 2에서도 양가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구 1과 유사한 분포 형태를 보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미국 대학생들과의 비교는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연구에 따라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미국 대학생들의 분포 형태는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형태(안심>회피>양가)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 대학생들의 분포 형태는

표 2. 애착 유형 분포 형태의 한·미 비교

	안심	거부	양가	공포
한 국	40.1%	10.8%	34.1%	15.0%
	41.5%	10.0%	37.6%	10.4%
미 국	46.7%	18.2%	14.3%	20.8%
	57.4%	17.6%	10.3%	14.7%

두 번의 연구 모두에서 안심>양가>회피의 형태로 나타났다.

자기 존중감 및 대인문제에서 유형간 차이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기 존중감 척도에서 안심형은 양가형과 공포형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얻었다(표 3). 거부형의 자기 존중감 점수는 안심형보다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 1의 결과와 달리 거부형과 양가형 및 공포형 상호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애는 안심형과 공포형 간의 차이만 유의미했는데, 전체적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자기애 점수는 높은 편이 아니었다. 40문항을 5점 척도로 평가할 때 모든 문항에 대해 중간 척도인 3점으로 반응하면 120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집단도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것은 본 연구의 표집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자가 아닌 정상적인 대학생 집단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과신하며, 그에 따라 자기 주장도 강하고 타인으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기애적 특성이 관계지향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

대인문제의 8개 하위 영역은 각각 8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문항에 중간 점수인 3점으로 반응하면 24점을 받을 수 있다. 8개 하위 영역 중 이에 도달한 영역은 하나도 없었지만, 비교적 높게 나온 영역은 비주장성, 피착취성, 현신성 영역이었고 낮게 나온 영역은 지배성, 보복성, 냉담성 영역이었다. 높게 나온 영역과 낮게 나온 영역이 상호 대칭 관계에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무선적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은

표 3. 애착 유형별 각 척도의 평균과 변량분석 결과

	안심형	거부형	양가형	공포형	전체	F(3, 225)	p
사례수(%)	95(41.5%)	23(10.0%)	86(37.6%)	25(10.9%)	229		
존중감	38.57 (5.48) _b	36.87 (5.64) _{a,b}	34.14 (6.37) _a	34.16 (6.93) _a	36.25 (6.33)	9.33	.0000
자기애	117.74(21.73) _b	112.65(21.08) _{a,b}	111.21(19.53) _{a,b}	104.52(18.92) _a	113.33(20.87)	3.30	.0210
지배성	15.01 (4.35)	17.65 (4.25)	15.56 (5.01)	15.80 (3.79)	15.57 (4.58)	ns	
보복성	14.33 (3.84) _a	18.70 (5.23) _b	16.95 (4.28) _b	18.52 (3.95) _b	16.21 (4.48)	12.63	.0000
냉담성	13.74 (4.52) _a	19.13 (4.70) _{b,c}	16.14 (5.25) _b	21.76 (5.77) _c	16.06 (5.56)	21.06	.0000
회피성	16.04 (5.78) _a	21.91 (6.89) _{b,c}	19.33 (6.34) _b	24.44 (5.23) _c	18.78 (6.63)	16.03	.0000
비주장	19.03 (5.58) _a	21.83 (5.62) _{a,b}	23.00 (5.23) _b	24.68 (5.69) _b	21.42 (5.83)	11.46	.0000
파착취	19.28 (5.87)	20.91 (5.55)	21.42 (4.77)	21.80 (6.32)	20.52 (5.57)	ns	
현신성	21.96 (5.51)	22.39 (6.26)	21.64 (5.14)	22.12 (5.00)	21.90 (5.37)	ns	
간섭성	18.02 (4.84) _a	16.96 (3.62) _{a,b}	20.12 (5.41) _b	16.00 (3.72) _a	18.48 (5.03)	6.45	.0003

주) 아래 첨자(a, b, c)는 Scheffe 사후비교 결과

낮은 자기애적 성향과 일맥상통하는 반응이며, 자기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계지향적인 한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Alden, Wiggins 및 Pincus(1990)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개인의 주된 문제 영역을 좀더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인문제 검사 도구에서 나타난 원점수를 동등한 준거에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ipsatization을 추천하고 있다. 하나의 도구 안에 여러 개의 소척도가 있는 경우 ipsatization 절차를 통해 응답자의 반응 경향성에 따른 효과를 줄일 수 있으며, 개인의 특성을 좀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ipsatization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개인이 취득한 총점수를 소척도의 수로 나눠 개인의 전체 평균을 구한 후, 각 소척도 점수에서 전체 평균을 뺀다. 그렇게 해서 나온 점수를 각 소척도별로 표준점수화한다. 이렇게 되면 소척도간의 상대적

인 비교가 가능해지며, 문제 영역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3에 있는 대인문제 영역별 원점수를 ipsatization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ipsatization 결과 원점수에서는 유형간의 차이가 있었던 보복성 영역이 ipsative 점수에서는 차이가 없어졌으며, 현신성 영역은 그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ipsatization 결과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원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안심형과 양가형은 5개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ipsative 점수에서는 비주장성과 현신성 영역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 안심형과 양가형이 ipsative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집단간 차이가 거의 사라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ipsative 점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인문제 영역에서의 애착 유형간 차이는 (안심형+양가형) 집단과 (거부형+공포형) 집단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연구 1에서 실질

표 4. 대인문제 영역별 원점수의 ipsatization 결과

	안심형	거부형	양가형	공포형	F(3, 225)	p
지배성	.1930	.1675	-.1443	-.3909	ns	
보복성	-.1213	.3205	.0253	.0789	ns	
냉담성	-.2282 _a	.4561 _{b,c}	-.1477 _{a,b}	.9559 _c	13.35	.0000
회피성	-.2858 _a	.3992 _{b,c}	-.0237 _{a,b}	.8001 _c	10.28	.0000
비주장	-.2558 _a	-.2460 _{a,b}	.2511 _b	.3346 _{a,b}	5.59	.0010
파착취	.0523	-.2412	.0631	-.1939	ns	
현신성	.3697 _b	-.2036 _{a,b}	-.2248 _a	-.4444 _a	8.51	.0000
간섭성	.2051 _b	-.5937 _a	.2057 _b	-.9409 _a	14.94	.0000

주) 아래 첨자(a, b, c)는 Scheffe 사후비교 결과, 각 척도의 수치는 Z 점수

적인 유형간 차이가 (안심형+거부형) 집단과 (양가형+공포형) 집단간 차이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ipsative 점수에서 평균치(0점)로부터 좌우 변산 폭이 작을수록 대인관계 영역의 문제들이 지나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지배성 영역에서 양의 값이 크다면 타인을 통제하거나 공격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이 클수록 그러한 성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가 하면, 피착취성 영역에서 양의 값이 클수록 타인에게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남에게 잘 속고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는 의미이며, 음의 값이 클수록 그런 느낌이 약하다는 의미이다. ipsative 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한·미 대학생간의 비교도 가능한데,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에서 나타난 미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별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

<안심형> - 8개의 하위 영역이 평균치(0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거부형> - 보복성, 냉담성, 회피성 영역이 높게 나타나고 피착취성, 헌신성, 간섭성 영역은 낮다. 특히 보복성과 냉담성 영역은 4가지 애착 유형 중 가장 높은 점수(약 +1)를 보이고 있다.

<양가형> - 간섭성, 헌신성 영역이 매우 높으며, 지배성과 보복성 영역도 다소 높다. 특히 간섭성 영역은 4가지 애착 유형 중 가장 높다. 냉담성과 회피성 영역은 매우 낮다.

<공포형> -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영역이 매우 높다. 회피성과 비주장성은 4가지 애착 유형 중 가장 높다. 보복성, 지배성, 간섭성 영역은 4가지 애착 유형 중 가장 낮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안심형으로 분류된 한국 대학생들의 반응 특징은 미국 대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한국 대학생들이 헌신성 영역에서 다

소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거부형의 경우도 한·미 대학생들의 반응 형태는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의 보복성, 냉담성, 회피성 점수는 미국 대학생들보다 낮다. 간섭성 점수도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낮은 편이다. 양가형은 한·미 대학생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양가형과 달리 한국의 양가형은 안심형 못지 않게 안정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공포형의 간섭성 점수가 낮은 것은 양국 대학생들의 공통된 특징이지만 한국 대학생들이 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냉담성 영역의 점수에서는 양국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공포형으로 분류된 미국 대학생들의 냉담성 점수는 0점에 가까운데, 한국의 공포형은 .96으로서 전체 집단 중 가장 높았다. 미국의 경우는 거부형 집단에서 냉담성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애착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영역, 문제의 강도 등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대학생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연구 2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 분포 형태가 미국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또한 대인문제 영역에서도 한·미 대학생들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 동시에 한·미 대학생들의 반응을 측정한 엄격한 연구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과 측정 도구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상진 등(1994)의 연구에서 밝혀진 '부모-자식 일체감'이라는 현상이 한국인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애착 유형의 분류와 애착 유형별 특성에 대한 평가는 미국의 기준과 달라야만 한다. 즉 부모-자식 일체감이라는 현상은 외견상 양가형의 특성과 매우 유사하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자식 일체감을 지각하고 있는 한국의 중·고·대학

2) Bartholomew와 Horowitz(1991)의 연구에는 미국 대학생들의 대인문제 영역별 ipsative 점수가 수치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8개의 하위 영역으로 분할된 파이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종축과 횡축에 평균치(0점)와 ± 1 표준편차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영역별 점수 분포를 어느 정도 알 수는 있다.

생들이 양가형으로 분류된 미국 학생들과 동일한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애착 유형이 부모와의 관계를 넘어 일반적인 대인관계 영역으로 확대될 때 문화차의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즉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동일한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의 문제 영역이나 강도 등에서 한·미 대학생들은 서로 달랐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애착 유형별 특성이 양국에서 서로 달랐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지, 대인관계의 문제 유형 자체가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비교를 위한 준거 설정의 문제는 모든 비교문화 연구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 차이란 양적 차이라기보다는 질적 차이를 의미한다. 한 문화권에 적합한 측정 도구를 둘 이상의 다른 문화권에 적용해 어떤 차이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화적 차원에서 '같다. 다르다'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아주 단순한 물리적 속성으로 사람들을 비교하는 경우에도 이런 어려움은 나타난다. 즉 키크고 잘 생긴 미국인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키크고 잘 생긴 한국인을 선발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전 인구에서 우월한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다고 가정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문화(自文化)에 적합한 측정 도구를 개발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앞의 예로 돌아가서, 두 나라가 자국에 고유한 기준에 따라 키크고 멋진 사람들의 분포율을 발표했다고 해도 양국의 결과를 비교해 어느 나라에 키크고 멋진 사람들이 더 '많다. 적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비교 문화 연구를 위한 가장 이상적인 도구는 문화간의 차이를 통합적으로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화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한 차이가 정말로 문화에 따른 차이인지 등을 밝혀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조건은 동일 준거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된

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그러한 차이가 문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밝혀지면 문화적 적합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구의 제작이 가능해진다.

앞에서도 밝힌 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엄격한 비교 문화 방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비교에 의한 추론이기는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애착이라는 현상이 문화적 보편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했음에도 성인 애착 유형의 분포율이나 대인관계 특성 등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애착 관련 연구에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는 데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 논의

지금까지 애착 유형의 분포 형태와 관련된 문제는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한 영역이었다. 그 이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많은 애착 연구들에서 애착 유형의 분포 형태가 상당히 일관된 형태를 보여 분포 형태 자체가 문제로 부각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일관된 형태는 유아기에 형성된 애착 유형이 성인기까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된다는 애착 이론의 핵심적인 가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관된 분포 형태에도 불구하고 안심형을 제외한 나머지 애착 유형의 특성은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애착 유형 자체가 애착 이론의 가정과 달리 안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것은 Baldwin 등(1996)이 지적한 대로 애착 유형이 개인의 특성 변인이 아니라 관계 변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애착 연구의 이론적 취약성과 방법론적 한계를 지적하는 연구들에서도 애착 유형의 분포 형태는 여전히 일관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 특성은 안정되어 있지 않은데 유형의 분포 형태는 안정되어 있는 이러한 기현상을 본 연구자들은 대인관계 측면에서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미국의 성인이나 대학생들에게서 회피형이 양가형보다 언제나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자기(self)의 독립과 자율을 중시하는 미국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인정'이라든가 '체면', '눈치', '부모-자식 일체감' 등의 현상이 널리 퍼져 있는 한국 문화에서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보다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알며, 때로는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는 사람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한국인은 대인관계에서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상대의 인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성관계든 동성관계든 친밀한 관계의 이상적인 표상은 나와 나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자들은 한국 대학생들에게서는 자기의 독립을 강조하는 회피형보다는 친밀에 대한 욕구가 높은 양가형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1, 2의 결과 예상대로 한국 대학생들의 애착 유형은 회피형보다 양가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착 유형별 특성에서도 미국 대학생들과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 1에서 나타난 한국 대학생들의 특성은 자기-타인 이원 모델에서 가정하는 것과 달리 애착 유형별로 타인에 대한 평가 부분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3유형 분류 방식을 채택했을 때 더욱 잘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애착 유형으로 분류될지라도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특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더라도 불구하고 한·미 대학생들의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연구 2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특히 양가형으로 분류된 한국 대학생들은 대인문제 영역에서 안심형 못지 않게 안정된 형태를 보여 미국 대학생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애착 이론에서는 안심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도 적게 경험하는 반면에 불안정(insecure)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그와 반대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애착 이론에서 가정하는 것처럼 애착 유형에 따른 특성들이 문화적 보편성을 갖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연구 2에서 양가형인 사람들이 대인관계 영역에서 뚜렷한 문제를 보이지 않은 것은 그들의 특성이 한국 문화에 적합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즉 관계지향적인 한국 문화에서는 친밀감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 양가형이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적응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범상황적인 일반적 대인관계에서의 보편적 관계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특정 관계(예; 부모형제와의 관계, 선후배와의 관계, 가까운 친구와의 관계 등)에서의 애착 유형을 질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 상호독립적이며 대등한 관계를 대인관계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인이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장 두드러진 대인관계 특성은 위계적 서열관계이다. 따라서 상호작용 상대를 지정해 줌으로써 한국인들이 특정 관계에서 어떤 관계 유형을 가장 많이 채택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과정을 통해 한국인들의 대인관계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한국인에게 적합한 대인관계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 유형의 분포와 관련해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주제로 성차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유아 애착 이론에서는 애착 행동을 유아에게 생물학적으로 부여된 능력으로 간주할 뿐 남녀의 성차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성인 애착 연구에도 그대로 이어져 대부분의 문헌에서 성차의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즉 특정 유형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할 뿐 같은 유형내에서 남녀의 특성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인 애착 이론은 애착 관련 특성들이 부모-자식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런데 어떠한 관계에서든 남녀의 성차가 나타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Berscheid, 1994). 최근의 관계 문헌들에 따르면, 적어도 미국 문화에서 대인관계 지향에서 남녀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Dolinger, Preston, O'Brien, & DiLalla, 1996; Josephs, Markus, & Tafarodi, 1992; Woike,

1994). 즉 미국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독립과 자율성 및 자기 주장성을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친화, 순응 및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요한 가치로 내면화한다. 이러한 특성은 남자와 여자가 대인관계에서 각각 개별성과 관계성을 지향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애착 유형의 분포에서 남녀 차이를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들은 바로 Bartholomew와 Horowitz(1991)였다. 그들이 제시한 4가지 애착 유형에서 거부형의 특성은 남성적인 개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양가형의 특성은 여성적인 관계성과 유사하다. 이러한 남녀 차이를 반영하듯 그들의 연구에서 특히 거부형의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남성들이 더 많았다. 그 이후,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4유형 척도를 사용한 Carnelley 등(1994)의 연구에서는 거부형의 비율이 너무 낮아 나머지 3유형만으로 집단 차이를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애착 분포 비율에서의 남녀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연구 1에서는 분포 비율을 비롯해 자기 존중감 등의 측정치에서 통계적으로 어떠한 성차도 없었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에서 여성들의 거부형 비율이 낮았으며, 양가형의 비율이 높았다. 그외에 자기 존중감과 대인문제의 몇몇 하위 척도에서 남녀차가 나타났다.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지 못했지만, 애착과 관련된 남녀차의 문제는 독립된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 있는 한국 문화에서 애착 관련 행동에 과연 어떤 남녀차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자들은 연구 1, 2에서 나타난 결과를 주로 문화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매우 제한된 사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 변인의 영향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 성인 집단이나 중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가 보강되어야 하며 연구 방법의 개선도 도모해야 한다. 사람들의 행동에 반영된 문화적 영향력을 밝혀내는 작업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Jahoda(1990)도 지적했듯이, 준실험적 방법과 세련된 심리측정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비교 문화 연구의 발견들은 본질적으로 기술적인 채로 남아 있다(p. 34). 뿐만 아니라, 비교 연구에서 관찰된 심리적 현상들의 차이는 문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관찰된 차이가 문화와 어느 정도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정의 없이 흔히 문화적 차이로 귀결된다(Betancourt & Lopez, 1993). 이러한 지적은 본 연구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진술이다.

참고 문헌

- 이수원(1995). 한국인의 인정: 그 심리학적 함의(I). 임능빈 편. *동양사상과 심리학*(pp. 545-560). 서울: 성원사.
- 최상진·김혜숙·유승연(1994). 부자유친 성격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65-82.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Ambert, A.-M.(1994).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on parenting: Social change and social construc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529-543.
- Baldwin, M. W., Keelan, J. P., Fehr, B., Enns, V., & Koh-Rangarajoo, E.(1996). Social-cognitive conceptualization of attachment working models: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effec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94-10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1991). Attach-

- 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rscheid, E.(1994).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79-129.
- Betancourt, H., & Lopez, S. R.(1993). The study of culture, ethnicity, and race in American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48, 629-637.
- Bowlby, J.(1969). *Attachment and loss: vol.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1973). *Attachment and loss: vol.2. Separation*. New York: Basic Books.
- Buelow, G., McClain, M., & McIntosh, I.(1996). A new measure for an important construct: The attachment and object relations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604-623.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41-156.
- Campos, J. J., Barret, K., Lamb, M. E., Goldsmith, H. H., & Stenberg, C.(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2. Infancy and psychobiology*(pp. 783-915). New York: Wiley.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assidy, J.(1988). Child-mother attachment and the self in six-year-olds. *Child Development*, 59, 121-134
- Choi, S., & Choi, S.(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Collins, N. L., & Read, S. J.(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olinger, S. J., Preston, L. A., O'Brien, S. P., & DiLalla, D. L.(1996). Individuality and relatedness of the self: An autobiographic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268-1278.
- Feeney, J. A., & Noller, P.(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281-291.
- Field, T.(1996). Attachment and separation in young childre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7, 541-561.
- Fiske, S. T.(1992). Thinking is for doing: Portraits of social cognition from daguerreotype to laser-phot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877-889.
- Fox, N. A.(1995). Of the way we were: Adult memories about attachment experiences and their role in determining infant-parent relationships: A commentary on van IJzendoor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04-410
- Halverson, C. F., Jr.(1988). Remembering your parents: Reflections on the retrospective method. *Journal of Personality*, 56, 435-443.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Jahoda, G.(1990). Our forgotten ancestors. In J. Berman(Ed.), *Nebraska Symposim on Motivation, 1989*(pp. 1-40).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Josephs, R. A., Markus, H. R., & Tafarodi, R. W. (1992). Gender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391-402.
- Kagitcibasi, C.(1990). Family and socializat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A model of change. In J. Berman(Ed.), *Nebraska Symposim on Motivation, 1989*(pp. 135-200).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Lewis, M.(1990). Self-knowledge and social development in early life. In L. A.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pp. 135-164). New York: Guilford Press.
- Main, M., & Solomon, J.(1990). Procedures for identifying infants as disorganized/disoriented during the Ainsworth Strange Situat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kulincer, M.(1995). Attachment styl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203-1215.
- Raskin, R., & Terry, H.(1988).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890-902.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ike, B. A.(1994). The use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processes: Empirical studies of "separate" and "connected" ways of thin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42-150.
- Wrightsman, L. S.(1974). *Assumptions about human nature: A social-psychological analysis*. Monterey, CA: Brooks/Cole.

Distribution of Attachment Styles and Interpersonal Relational Characteristics in Korean College Students

Dong-Jik Kim and Seong-Yeul Ha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Korean college students' distributional pattern of attachment style. The typical distributional pattern of American adults and college students appeared in order of secure>avoidant>ambivalent in many studies. In spite of this consistent distributional pattern, the differences in many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etween attachment types are unstable. We are to understand this disparity in cultural perspective. Particularly, we conjectured that the higher ratio of avoidant in comparison with ambivalent is a reflection of American culture emphasizes individuality and independence of self. Korea is classified into collectivistic and relational oriented culture. Therefore we anticipated that there are more ambivalent than avoidant in Korean culture. As anticipated, the ratio of ambivalent was higher than that of avoidant in Korean college students. And the characteristics between attachment types were different in two cultures. We discussed it with cultural view.